

한국미술 흐름·정신 되짚고 현재를 성찰하다

근현대 미술의 맥 있는 황토회 제57회 정기전

내일부터 서울인사아트센터서…총 20명 출품

미술 교류 장 기대…“새로운 자극·성찰 계기”

가장 오래된 미술인모임 중 하나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맥을 잇는 것을 목표로 한 '황토회' 황토는 남도 땅으로 표상되는 전라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그곳에 기반 유구한 역사와 민족들의 삶을 이어 올 수 있다. 황토는 소외의 한이 묻어있는 상징이기도 하고, 강인한 생명과 정서의 표상으로 상징됐다. 그래서 동인 명칭인 황토가 가져다 주는 미술작가가 작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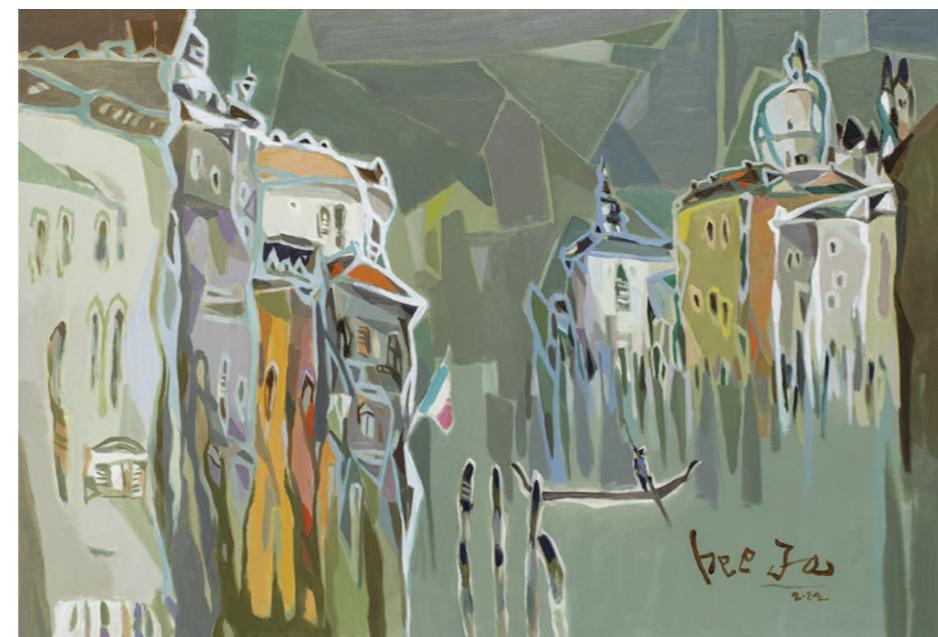
줄곧 오지호와 배동신 화백을 중심으로 창립돼 자연과 인간, 회화의 본질을 향한 진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 '황토회'는 1970년 창립했다. 1964년 '에쁘끄' 창립 이후 6년 뒤였다. 지난해 에쁘끄는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그 에쁘끄 못지 않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황토회는 올해 제57회 정기전을 앞두고 있다. 1979년과 2007년 두 해를 빼고 매년 정기전을 열어왔다. 1회에서 3회까지 매년 전시를 진행했다.

2006년은 한해에 세 차례 전시를 열어 황토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정기전을 가진 해로 기록된다. 그래서 2007년은 쉬어갔는지 모임이다. 처음 출범 하던 1970년대 연혁만 보더라도 황토회가 보통의 동인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창립전 명단을 보니까 기라성같은 화가들이 맘껏 됐다. 오지호 배동신 김인규 최용길 김수호 강동문 화백 등 6명이다. 6명으로 출발했던 모임이 지금은 2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런 황토회가 부산 제주 대구 등 전시에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전시를 연다. '자연의 문장, 봄으로



고희자 작 '베네치아D'



신동언 작 '봄 나들이'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릴 전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인사아트센터 3층 G&J갤러리에서 있다. 전시에는 회원 13명 뿐만 아니라 신종섭 송용강연균 배동환 박동인 신문용 김대원 화가 등 초대작가 7명이 함께 한다.

초대작가들은 대다수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출향작가들로 꾸렸다. 회원으로는 박석규 신동언 정은기 이진표 고희자 신동원 정철 강근선 추순정 송근미 백은영 오금숙 꽈민조씨 등이다.

회원작가들과 초대작가들의 개성적이고 예술적

완결성이 높은 작품이 한데 어우러질 뿐 아니라 세대와 장르, 지역을 초월하는 미술 교류의 장이 기대되는 한편, 단순한 정기전을 넘어 한국미술의 흐름과 정신을 되짚고 현재를 성찰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정기전은 창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미술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이 공존하는 자리로, 원로작가들의 삶의 관록이 묻어나는 깊이 있는 회화세계는 물론이고 각기 독창적 회화세계를 일구기 위해 노력해온 회원들의 사유와 물상

에의 지속적 탐구가 투영된 작품들이 출품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미술적 조형언어가 갖고 있는 다채로운 사유의 페이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장을 맡고 있는 고희자 교수(송원대)는 "황토회만의 면면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한국 회단을 대표하는 대가 화가 여러분을 초청해 회원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각기 다른 조형 언어와 시대적 감각을 지닌 작품들이 한 공간에서 조우함으로써 한국 회화의 깊이와 확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면서 "관람객들이 예술적 사유와 감동의 시간이 되고 참여작가들에게 서로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사유와 페이지를 선사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토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나주 금천과 봉황 일대 배꽃을 대상으로 아외스케치를 4월에 다녀온 뒤 5월 스케치했던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를 한달 동안 전남 나주 최선정형외과 부설 여천갤러리에서 여는 등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열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감각과 감성 조화 이룬 '절제의 언어' 구사

임영자 첫 시집 '겹꽃으로…' 펴내
시인 관찰력·시적 상상력 돌보여

전남 보성 출신 임영자 시인이 첫 시집 '겹꽃으로 피어나는 손'을 시산맥 기획시선 166번에 권으로 최근 펴냈다. 표제 '겹꽃으로 피어나는 손'은 시 '비파나무'와 '아버지의 손'에 나오는 시문을 합쳐 만든 제목으로 보성 거주시절 알뜰슈퍼를 지나 경로당에 있던 비파나무 꽃위에 내린 눈을 보고 그것을 겹꽃으로 표현했다. 비파나무는 동백이나 치꽃, 매화처럼 겨울에 피는 대표적 꽃 중의 하나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 해설(김성진 시인)에서 언급했듯 내면 세계의 자장과 확장을 통해 시공간의 유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분출하는 이미지와 연결해 독자적 시세계를 구축한다. 내밀한 눈은 시적 상상력을 통해 실존적 자각을 현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속에서 표상되는 이미지들은 은전한 자신만의 창조물

로 언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기폭제로 활용되는 듯하다.

독일 낭만주의 집단성을 통해 공동철학과 공동 문학을 추구했던 프레데릭 슬레겔이 '시적 이미지는 단숨에 이뤄진 정조'라고 했는데, 시인의 시편들이 상상력과 연계돼 창조된 시세계를 발아했다는 점에서 그 혼적들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다 시인은 물상들의 참신한 이미지를 찾고자 노력했는데 섬세한 감각과 정서를 얹기 위한 노력을 경주, 시적 진폭이 한 층 더 확장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전남대 교정으로 운동을 나가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을 보고 상상력을 발현한 시 '마트료시카'에서 시인은 '비파나무 얼굴이 바뀌는 시대/등이 드러난 마른 즙을 듣는다//저 눈은 누가 우물처럼 파놓은 것일까/눈썹 한쪽 웅이진 고요/주름 끗진 수심이 깊다//…중략…//삐걱거릴 때마다 나는 나를 바꿔 입어야 해요/겹겹 바닥을 뒹군다. 벗겨도 벗겨도/알맹이면서 껍질인 또 하나의 당신//입술만 깜빡이는 인형

/공원 모퉁이에 버려진 기억들이 어둠에 묻힐 때/파랗게 수집되는 기분/곧 다시 머리에 쑥이 틀 것이다'고 노래한다.

오늘날처럼 근본적인 것들마저 갈아엎어지는 세태 속에서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균원까지 얻을 수 있는 시대. 이제 자연마저 얼굴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바꾼다는 시각에서 시인의 한층 더 깊어진 관찰력을 대변할 수 있다. 얼굴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등이 드러난 마른 증언마저 바꿔가며 분주하게 사는 오늘의 세태 한 단면과 조우할 수 있다. 시속 늘 '삐걱거리는 주체는 시적 자아로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 때부터 가사를 해야 했던 시인의 삶의 향방을 표징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된다.

또 시인은 시 '볼링'에서 '등 뒤에서 잃어버린 손을 잡는다//…중략…//고통도 식사였던 한때의 그늘을/과감하게 대신 던지는 오늘/스트라이크/마주 볼 수 없는 시선/마른 목소리가 물길처럼 흐른다/누군가의 선택은 둑근 각도로 휘어지고/이름을 잊는 날은 내 표정도 깃길로 썼다//그날 이후/시간은 맨살로 늙는 방이기도 했다'고 읊는다.

시속 '등 뒤에서 잃어버린 손'이나 '고통도 식사였던 한때의 그늘', '시간은 맨살로 늙는 방' 등의 시문에서 시인의 관찰력과 시적 상상력, 표현력, 정서와 임에 대한 절제력을 단박에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이 어우러져 한편의 시가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시의 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오랜 동안 습작기를 거쳐온 시인이다. 그만큼 시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미 서너권을 냈어야 할 나이지만 첫 시집을 냈다. 그리고도 자신을 한없이 낮춰 세우는 모습에서 그는 조용 조용하게 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읽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CC 브런치 콘서트' 올해는 하루에 두 번 만난다

ACC재단, 오전 11시·오후 7시 30분
연간 패키지 30일 오전 선착순 판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ACC 브런치콘서트', 저녁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관객들이 클래식과 무용, 국악 등 음악과 혼연一体인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낮 시간 만날 수 있어 연간 프로그램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패키지는 매년 조기매진을 기록할 만큼 인기다.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은 'ACC 브런치 콘서트'가 올해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 열릴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 재단)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ACC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선보인 'ACC 브런치콘서트'를 올해 'ACC 브런치콘서트 플러스'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오전 1회 진행한 공연 횟수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하루 2회차로 확대해 관객의 선택권을 넓혔다.

2026년 프로그램은 오는 2월 25일 광주 솔로이스츠와 피아니스트 조제혁의 토크콘서트로 막을 올린다. 3월에는 서울발레시어터의 '발레로의 초대', 4월에는 김영하 작가가 소개하는 '작기의 음악'이 이어진다.

5월에는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Lost Pieces', 6월에는 미스터트롯과 혼연一体인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쳐 콘서트가 각각 무대에 오른다.

하반기에는 해설형 공연과 장르 확장 무대가 이어진다. 7월에는 이창용 도슨트가 '그리스 로마 신화, 클래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공연하고, 8월에는 고고씽프로젝트(고영열·고아라·프렐류드)가 '소리, 재즈와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9월에는 성악가 지나 오가 들려주는 '오페라: 바로크에서 낭만까지', 10월에는 전원 테너로 구성된 그룹 포르테나의 '기적의 하모니' 무대

가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이서준 도슨트와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간 클래식: 프랑스', 12월 뮤지컬 배우 리사와 김성식이 출연하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갈라 콘서트, 양코르'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운영 방식 역시 개편한다. ACC재단은 공연이 종료된 뒤 제공하던 뺨과 음료를 대신해 인근 식당·카페와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ACC재단은 총 11회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ACC 브런치콘서트 플러스 연간 패키지 티켓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오전 공연 50석, 오후 공연 50석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판매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김명규 사장은 "2026 ACC 브런치콘서트 플러스는 공연 횟수와 구성의 확장을 통해 더 많은 관객이 예술을 즐기도록 기획했다"며 "낮과 저녁, 서로 다른 매력의 무대로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내달 25일 무대에 오르는 광주 솔로이스츠

공연 일정과 예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예술의전당 '시민기자' 뽑아요
글·사진 분야 등 내달 6일까지 접수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은 전당의 다양한 공연 정보와 문화 소식을 직접 취재하고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림 '2026 광주예술의전당 시민기자단 4기'를 모집한다.

지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이 많고 멀티미디어 콘텐츠(홍보 게시글,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글·사진, 영상 2개 분야이며 선발 인원은 총 15명이다.

선발된 시민기자단은 올해 3월부터 12월 15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한다. 전당 공연과 축제, 전시 등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당 주최 공연 현장 취재 및 인터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접수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ysr03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2월 12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 발표하고 합격자에 한해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8235.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